

쑤냐 들로우네의 회화와 의상 · 직물디자인 세계

임 선 희

진국대학교 가정대학 공예학과

A Study on Sonia Delaunay's Painting, Fashion and Fabric Design

Sun-Hi Yim

Dept. of Arts and Crafts, College of Home Economics, Konkuk University

(1986.1.31 접수)

Abstract

Sonia Delaunay(1885~1979) was one of great pioneers of abstract art, who looked at clothes and fabrics with a plastics eyes. In Association with her husband Robert Delaunay, they were instrumental in founding the movement of Orphism, she proceeded to mix strong and bright colors into her art and had a brilliant influence on the decoration and women's fashion of the 1920's.

Having a strong sense for dramatic and decorative color derived in part from childhood remembrances of Russian folk art she initiated a total revolution in which she created her first simultaneous dress with multi-colored samples of materials.

She extended the principle of color's simultaneity to the field of fashion, fabric design and applied art. She was interested in the dress for ballet and opera.

Fashion designer Paul Poiret asked her to design the fabrics and she created the geometric and abstract patterns with her strong color.

It seemed that her design was revolutionary and avant-garde. Always she desired not only art of seeing but also art of li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nfluence she had upon the history of modern fashion and fabric design.

It was remarked that her paintings served as a basis for later developments in Kinetics Art and had influences on 1980's abstract patterns for silk dress.

Finally, the concept 'simultaneity' of her art signifies endless rhythmes in space and time.

I. 서 론

Sonia Delaunay(1885~1979)의 예술세계는 현대 서

양 미술사조에서 볼 때 추상예술의 선구자 중의 하나
로써 돋보이면서도 쑤냐의 남편 Robert Delaunay의
명성의 뒷전에 감춰져 있기도 하다. (물론 남편의 명
성 때문에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특히 현대 의상과 직

물디자인의 역사에서 보면 더욱 더 감춰진 작가로써 마치 창고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내듯이 쏘나의 조형세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쏘나가 생존해 있을 때에 여자로서는 처음 Louvre 박물관에서 초대전시회¹⁾를 갖을 만큼 쏘나는 강한 예술관을 가지고 있다.

쏘나의 출발은 화가로써 시작이었으며 현대예술의 흐름 속에서 의상·직물 그리고 장식예술에서 보여준 쏘나의 조형세계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서 美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며 단지 보는 예술로써 뿐만 아니라 삶의 예술로써 인간의 삶과 정신에 새로움을, 참신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쏘나 들로우네의 예술은 20세기 초반부터 큰 역할을 해내고 있었기에 그것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 시대의 미적 가치는 그 시대 인간들이 삶이 영위하는 정신세계에서의 현실적 표현을 통해 얻어질 수 있듯이 쏘나 들로우네의 회화사로서 의상디자인로서 그 시대의 예술의 진실을 더 한층 강하게 구축하며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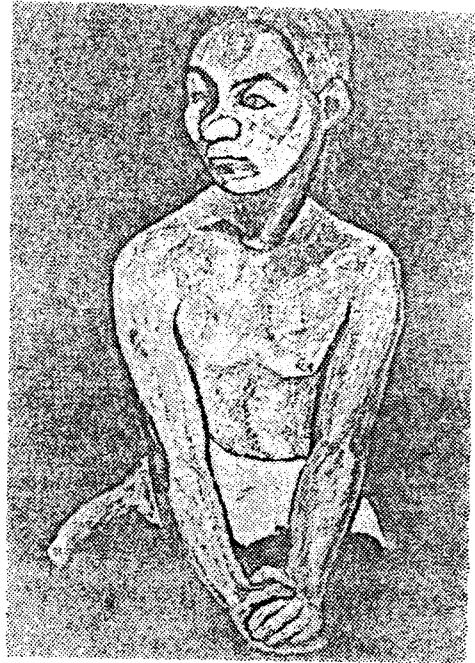
쏘나는 그 시대의 Chanel 과 P. Poiret 처럼 전문적인 디자이너는 아니었지만 쏘나의 수놓은 망토와 조끼 등은 직물과 더불어 크게 유행하였으며²⁾ 특히 쏘나의 아방 가드(l'avant-garde)한 무대의상은 예술가들에게 때로 띄어 있었다.

삶으로써의 예술을 위하여 쏘나의 추상표현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쏘나의 작업행위에서 보고 확인하면서 회화를 의상·직물디자인에 직접 도입시킨 그 표현정신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쏘나의 작업을 통해 형성된 시각적 인식은 20세기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던한 인간 삶과 정신세계의 변화의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음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쏘나의 회화세계와 그것을 통해 얻어진 예술적 사고를 의상디자인에 확장시킨 세계 그리고 쏘나예술의 동시성(Simultaneity)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예술에 있어 회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

II. 쏘나 들로우네의 회화세계

20세기는 19세기의 다변화된 영역과 과학적 논리와³⁾ 전개 위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으로써, 20세기 초반은 미술사에 있어서 무척 풍요로운 시기 중의 하나였으며 많은 그룹이 형성되고 또 와해되기도 하며 끊어 또 다른 운동으로 지속되었다. 19세기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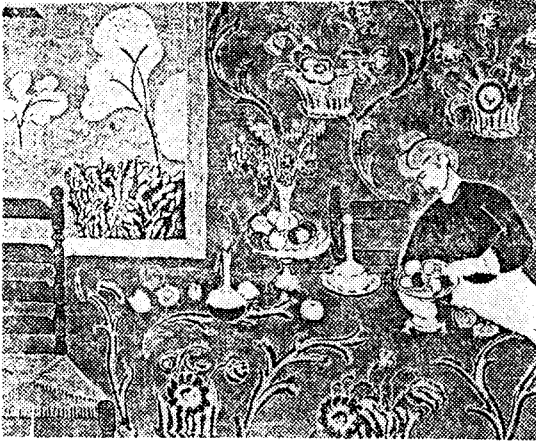


[그림 1] 핀란드소녀, 1907, 80×64 cm



[그림 2] P. Gauguin, 망고를 들고 있는 여인, 1892, 71×43 cm

식의 부재⁴⁾ 속에 세기말에 아르 누보(Art Nouveau)의 출현이 있음과 20세기에는 추상의 개념으로 새로운 예술의 변화가 두드러져왔다.



[그림 3] H. Matisse 작, 저녁식탁, 1908

역사적으로 변화함을 이해 한다는 것은 보는 방식으로 부터의 변화라 하겠다. 현대 삶의 변화 속에서 의식의 변화는 새로움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쏘냐 터크(Sonia-Terk)는 많은 유럽작가들이 Paris에 모여들듯이 그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쏘냐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러시아인으로써 어린시절에는 성 페터스부르크에서 회화수업을 하였고 1905년에는 파리의 팔레트 아카데미(L'Academie de la Palette)에서 계속하였다.

쏘냐는 후기 인상파인 고크(P. Gauguin)과 고흐에(V. Gogh) 심취했었고 [그림 1]을 보면 윤곽선에 집착한 강한 그리고 순수한 색채를 쓰고 있으며 고크의 [그림 2]를 연상시킨다. 반면 그들 부부가 서로 만나기 전이지만 로베르도 후기 인상파인 세잔느(P. aézanne)에게 물두하고 있었다.⁵⁾ 그들 부부의 회화의 동기에 있어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쏘냐의 예술세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남편 로베르와의 만남은 쏘냐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사조에 있어 결정적 순간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남편의 영향으로 더욱 더 예술 전개가 성숙되어 갔으며 로베르도 그의 예술에 있어 쏘냐와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예술세계는 밀착되어 있었다.⁶⁾

Dorival⁷⁾은 쏘냐의 전기빛 같은 파랑색 타는듯한 빨강색, 태양처럼 빛나는 노란색 그리고 화려하면서 깊은 검은색의 갈구가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가능한 쏘냐의 팔레트에 로베르가 따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쏘냐는 강한 색채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에 고향 시골사람들의 민속의상에서 보았던 빨간색

과 초록색의 강한 대비현상을 마티스의 장식적인 색채 [그림 3 참조]로 구사하려 열망했다.

쏘냐는 색채에 대해 “순수한 색채가 면을 이루고 동시대비로 인해 서로 반대됨으로써 창조된다. 새로운 형태는 밝고 어두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색채 그 자체가 가지는 관계의 깊이에 의해 구성된다.”⁸⁾ 쏘냐 예술에 있어 색채는 언어처럼 생명적 표현방법으로써 색채의 중요함을 이야기 한다.

로베르의 ‘색채는 형태와 곧 주체이다’⁹⁾라는 주장과 더불어 쏘냐예술의 색채작업의 본질을 이룬다.

그러므로 1909년 이후에는 완전히 포비즘¹⁰⁾을 벗어 버리고 색이라는 유일한 조형요소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추상으로 내뿜는다. 쏘냐는 로베르와 더불어 색의 동시성의 개념¹¹⁾은 1830년대의 셰브렐(E. Chevreul)의 색채대비론의 영향에 의해 정착된다.

셰브렐은 색채대비 결과는 색채가치의 동시적인 지각에 얻어지는 것으로, 색과 톤이 동시에 모여지면서 유사함의 조화나 대비의 조화를 이루며, 색조란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향하는 강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색의 다양한 변이를 설명하고 있다.⁹⁾

바로 이 동시성의 개념을 연속적이 아니고 동시적인 것으로 여러 시점에서의 동등한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쏘냐의 회화에서의 색채대비 현상은 곧 색의 다이내미즘을 형성한다.

그것은, 색채표현에 있어 전통적 개념을 ‘벗어나려 했던 인상주의에서 부터 순수한 본질을 찾으려 했고, 태양을 관찰하며 그 빛에서 색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그 빛은 이미 중세기적인 빛 그 자체도 아니고 르네상스의 그 찬란한, 빛나는 빛도 아닌 태양에서 유출하는 색의 움직임을 지각한다. 그 빛으로부터 색채는 시적 언어로 쏘냐의 시적 조형세계를 구축하며 추상으로 향한다. 이 추상으로 향하는 경향은 올피즘(Orphism)¹²⁾으로써 큐비즘¹³⁾의 P. Picasso 나 G. Braque가 구사하는 것에서 벗어난 시도를 한다. 시인 아폴리네르¹⁴⁾는 올피즘을 순수한 예술과 동등한 의미로 지적하고 있는데, 오르페우스(Orpheus)¹⁵⁾가 음악의 순수한 해석을 향하였던것 처럼 쏘냐와 로베르는 순수한 회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특히 쏘냐는 아흔 다섯살로 생애를 마칠때까지 이 작업에 몰두한다.

다시말해 삶의 변화가 정지하고 안정된 대상보다는 다이내믹한 힘으로 구성된 세계를 갖으려 하고,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받아들이며 예술 전개의 중심을 이루게 한다. 순수한 예술은 순수한 색채가 조형요소로써



〔그림 4〕 전기빛의 프리즘, 1941

생명력을 가짐으로 변화하며 추상적 형태속에 그 움직임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재현적인 것을 완전히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런 의지로서 독립된 내적 표현을 지니려 한다.

쏘냐는 밤의 산책을 자주 즐겼다고 한다.¹⁶⁾ 국제박람회 이후에 등장한 거리 전기광고 불빛에 매료되었고 특히 비오는날의 전기빛의 색채가 반영된 환영을 작품에 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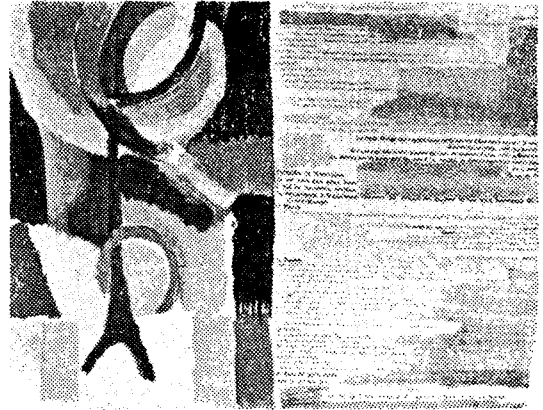
1914년에 전기빛의 프리즘(Prismes Électriques)이라는 작품에서 [그림 4] 전구주위에 빛의 색의 환영을 분해하며 원반을 구성함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주제선택을 떠나 색채로 대상의 유사함의 개념을 넘어서는 리얼리티를 형성하는 동기가 성립한다. 정오의 태양을 보면 회전하는 듯한 원반은 다이아믹한 리듬속에 원을 자꾸 그려나가고 전구주위에서 춤추는 듯한 색채의 환영을 쏘냐는 빛나는 시로써 현대 삶에 등장한 현상의 하나로 표현한다.

특히 세계대전을 대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동안 쏘냐는 리베리아 반도의 태양빛이 파리에서 보았던과 다르게 가깝고 인간적인 것으로 느낀다.

뿐만 아니라 어린시절의 풍경과 흡사한 삶의 흥분을 맛보며, 거리·시장·시골사람들, 축제등 그들의 찬란한 세계를 또 다른 조형적 리듬으로 사물의 형과 추상적 개념이 어울어진 반추상으로 흐르기도 한다.

쏘냐의 주위에는 늘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하였으며 특히 시인들과 공동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시인 블래즈 성드라(Blaise Cendrars)의 시집 <La Prose du Transsiberien et de la Petite Jehanne de France>



〔그림 5〕 동시적 책(livre simultané), 시와 회화, 1914.

의 장정과 삽화를 디자인 하였다[그림 5]. 시 자체가 이미 전통적 은유는 깨고있었을 뿐만 아니라 쏘냐 자신도 다양한 색채로된 글자를 인쇄하고 리듬 있는 색채 대비로 이 '동시적 책(livre simultané)'은 혁신적이었다.¹⁷⁾

회화와 시인은 시와 조형세계에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며 전통적 개념을 이미 배제하였다. 그 시에서 언어와 색은 리듬을 가지며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홀췌 악보를 보듯이, 시에 한번 던져진 눈길에서 언어와 색의 다이내미즘을 느끼려는 쏘냐의 회화의지이다. 쏘냐의 추상성의 존재 이유는 어느 영역에서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37년에 아르테코 국제전시회에서 철도국 관에 벽면을 장식하는 '먼 여행(voyages lointains)' 대작을 그린다. 그 대작의 추상화는 현대 건축의 벽을 보충해 주며 벽은 단순히 기하학적 형상의 배치가 아니라 요소들의 움직임 속에서 새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실재로써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¹⁸⁾

쏘냐의 회화에서 각이지고 구부러진 형상에 원, 사각, 삼각 또는 마름모등 기하학적 형태는 차거움에서 태양처럼 뜨거움을 발견한다. 끝없는 리듬을 향해 색채가 자유롭고, 그 속에서 내적 언어와 시가 색채의 건축으로 몸과 마음에 리듬을 준다.

리듬 있는 색채를 위하여, 남편 로베르의 죽음 후에도 꾸준한 작업을 해나갔다. 갈수록 형태는 분명하고 면을 간결히 배치되고 무한한 침묵을 약속하는듯 건축적 공간이 형성되어 진다.

예술가에 있어서 색채란 감성적 영역의 표출로써 단지 그것을 지각하고 파악하려는 감성의 노력에 의해 얻



[그림 6] 춤추는 여인, 고무수채화와 연필, 1917년

을수 있다고¹⁷⁾ 휴그(R. Huygh)가 말했듯이 쏘나는 글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색채를 가지고 시를 쓰는 남편 로베르와 더불어 빛을 통해 언어인 색채를 진실로 탐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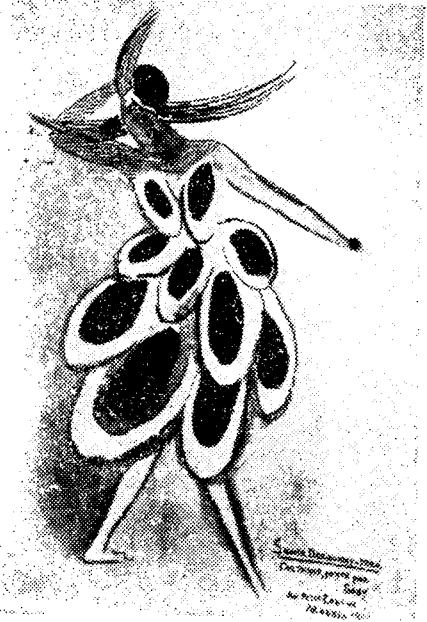
쏘나는 마티스와 고갱에서 받은 Paris적인 흐름과, 그녀 내부에서 흐르는 슬라브적인 색채의 흐름이 그녀를 감싸고 있으며¹⁸⁾ 러시아인의 추상적 기질로 단순화시키려는 조형의지는 이십세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의 한사람으로 길이 남는다.

Ⅲ. 쏘냐 들로우네의 의상·직물디자인 세계

앞에서 살펴본 쏘냐의 회화세계는 회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의상·직물, 타피스트리, 도자기 등 생활 영역으로 까지 확장된다. 쏘냐의 미적세계를 형성한 조형관을 투철히 지니고 있음을 보듯이 쏘냐에게는 보는 예술과 생활하는 예술의 본질이 동시에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쏘냐의 의상디자인은 발레나 연극을 위한 무대의상과 평상복을 위한 의상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실현되지 않은 의상들도 있으나, 잘 알려진 주제의 오페라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의상에 변화를 주기 위한 생각에 많은 스케치 작업을 보여준다[그림 6, 7]. 대표적인 무대의상으로는 1918년 마드리드에서 디아글레브(Serge de Diaghiev)의 소련 발레 ‘클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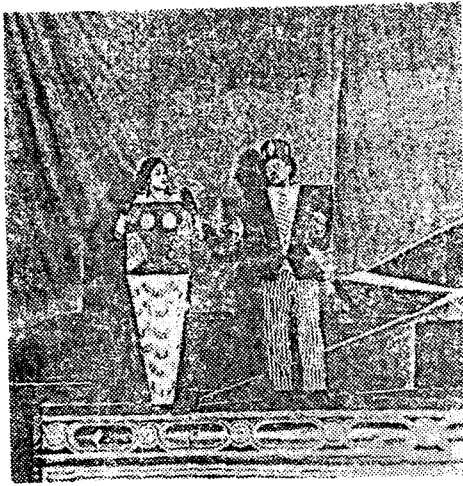
[그림 7] Gaby를 위한 의상, 1919.



[그림 8] 크레오파트라 의상, 1918.

파트라'의 의상이다[그림 8]. 그 역은 춤추기 보다는 몸짓 동작을 하는 것이었는데 쏘냐의 회화에 있어서 원반형태가 의상에 도입되어 이집트의 원초적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시인 일리아자드(Iliaszd)에 의해 열린 파티에서 쏘냐는 ‘원반의 춤추는 여인(danseuse aux disques)’



[그림 9] Coeur à gaz 의 한 장면

라는 의상을 만들었다.¹⁹⁾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커다란 마분지의 원반에 서로 다른 종류의 천으로 주로 노란색과 초록색의 배합이며 그것을 몸의 상체에 가까히 하고, 그 보다 작은 반원은 한개의 파란색 면과 두개의 빨간색 면이 칠해져서 치마를 이루게 하고, 오른손에는 검은색의 작은 원과 왼손에는 흰색의 작은 원은 들고 무용수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색채대비를 형성하며 신비롭게 춤을 추며 그 춤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쑨나의 무대상이 시적인 유모어로 향해가고 있음을 말하며 이런 시도속에서 표현의 가능성이 다양함을 실감하며 의욕으로 창작을 해 나간다.

그밖에도 트리스탄 자라(Tristan Tzara)의 'Coeur à gaz'[그림 9]를 위한 의상이라든가, Man Ray, Hans Richter 의 추상모션영화에 쑨나의 의상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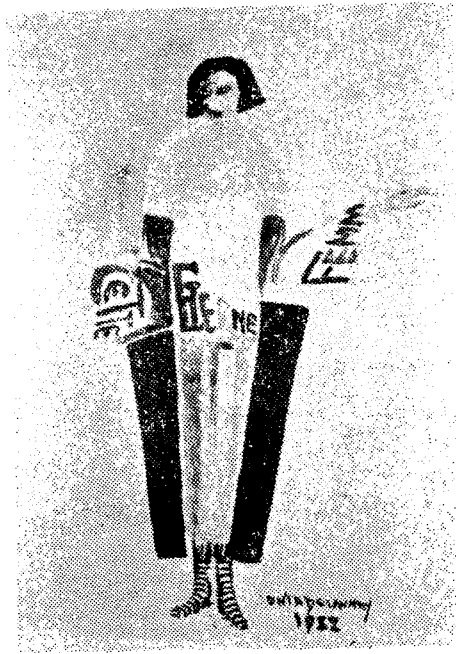
몇몇의 시인들이 쑨나의 의상에 시를 바치고 쑨나 역시 그 시를 위해 의상 스케치를 하곤 했다[그림 10]. 그 중에서 델테이유(Delteil)의 "Poème pour la robe future(미래의상을 위한 시)"에서 발췌하면²⁰⁾,

∴

실크에, 모직에 그리고 무명애
모든 신비가 있으며
옷을 자르는 예술은,
기적과 시간을 소유한다.
나는 천을 노래하노라.

∴

모든 선들은 마음으로 향한다.
우리들의 모자의 아라베스크는
목을 따라 마음까지 끌고 간다.



[그림 10] 시를 위한 의상, 1922

소매는 마음의 날개요,
양말은 마음의 색채이다.
장화는 풍만한 마음가운데
광증함의 중심이며
바지는 마음을 향해 기어오른다.
조끼는 마음의 하인이며
넥타이는 마음의 매듭이다.
단추들은 마음의 꽃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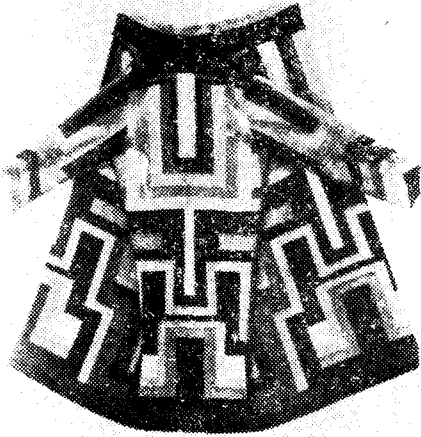
∴

오! 여인들이 신비롭게 변하는 것처럼
우주의 극치여!

의상은 인간마음의 표현으로써 신비함을 위해 향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쑨나의상에서 실험적이고 새로운 요구는 늘 쑨나가 향하고 있는 내적세계를 말한다. 자기의 어린시절의 절대적인 안정 속에서 보내 왔기에 러시아를 떠나게 된 이유택처럼 앞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적인 의상, 추상적인 역할의 쑨나의상의 의미를 더 한층 덧붙인다.

쑨나의 장식예술의 시발점이 된 것은 아들 샤를르(Charles)의 이불을 조각천으로 덧대어(patchwork) 마치 비구상의 Collage 처럼 러시아 풍속 색채를 연상해 가며 만들었다. 쑨나는 자기 아파트에도 벽지며 가구, 카펫 등 등시성의 개념의 색채와 재료로 꾸며져



[그림 11] Gloria Swanson을 위한 수놓은 망토, 1923.



[그림 12] 검은색의 실크 드레스, 1926.

있었다.

예를 들어 로베르의 의상을 보면, 보라빛 상의에 흑색바지, 베이지색 조끼를 걸치고 빨간 양말에, 노란색과 검은색의 구두라든가 때로는 검은색 바지에 초록색 상의, 하늘색 조끼와 빨간 넥타이 등 여러 색의 의상을 선택하였다.²¹⁾ 물론 쏘냐도 자기가 디자인한 직물로 직접 만들어 입기로 하였다.

쏘냐는 전통적인 과거의 것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에 만족치 않고 그녀 시대의 것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미적 사고를 가진 것이다.

쏘냐는 점점 더 자기 회화와 상응하는 의상을 창작할 필요성을 느꼈으므로 첫번째 ‘동시적인 의상(robe simultanee)’를 1914년에 만들었다. 로베르의 상하복으로 여러가지 색깔의 옷감 샘플을 이용하였다. 쏘냐의 회화작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이 의상에 대해 시인 선드라는 이렇게 쓰고 있다.²²⁾

Sur la robe, elle a un cor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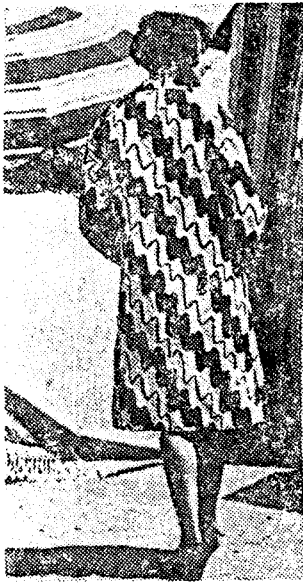
의상안에, 그 의상은 육체를 지녔노라.....하며 인간의 육체보다 더 아름다운 의상을 창조할 수 없다는 사고와는 달리 쏘냐의 의상을 의상 자체로 보다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쏘냐의 특징있는 의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쟁 후에 여성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활



[그림 13] 흰색과 검은색의 수영복 스케치, 1928.

동적인 기회가 보이며 패손에서도 가르손 GarÇonne라는 스타일이 서서히 형성되며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쏘냐의 의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쏘냐의 동시적인 율피즘의 조형세계가 거침없이 의상에 제작되고 있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치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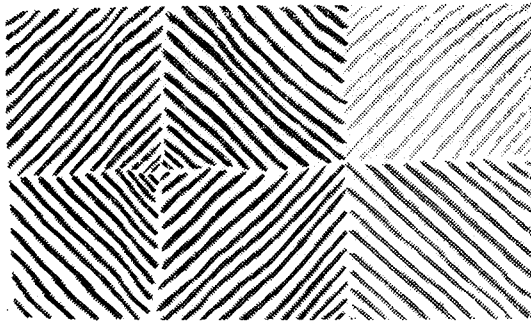
[그림 14] 빨강색, 흰색, 검은색으로 프린트된 천의 해변의상, 1925.



[그림 15] 푸른색의 여인을 위한 스캐치, 1924.



[그림 16] 검은색, 갈색, 베이지색의 의상을 위한 스캐치, 1924.



[그림 17] 줄무늬 직물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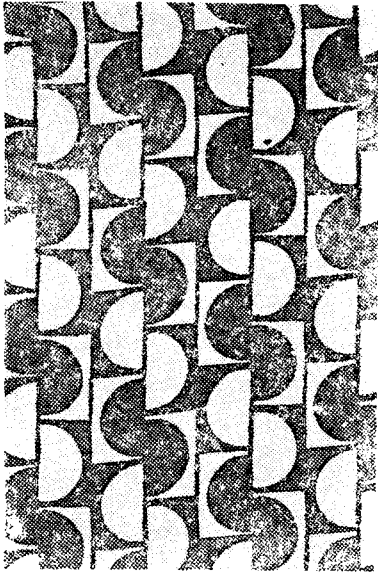
조형적 가치부여로 이행시킨 점으로 의상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쏘냐는 다양한 마티에르를 플라주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를 놓기도 한다[그림 11]. 쏘냐는 가구 포장용을 위한 질긴 실크라든가, 윤이 나거나 또는 없는 천조각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로로 수를 놓은 코트에 털을 달기도 하고, 때로는 검정색 명주망사의 야외복 드레스에 실크실로 나선형을 수놓기도 한다[그림 12].

전쟁 후에 검은색의 출현으로 쏘냐는 검은색을 흰색과의 강한 대비로 주조색으로 의상에 쓰고 있다. 이 색은 태양과 달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그녀 회화에서 보여

준것과 비슷한 동기라 할 수 있다. 쏘냐의 검은 색은 냉기와 휴식을 오히려 뜨거운 정열과 능동적 행위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쏘냐의 의상에서 쓰여지는 색들은 그녀의 회화에서 처럼 빨간색, 파랑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 때로는 회색을 가끔 베이지와 갈색을 이용하고 브라색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수영복, 테니스복, 야회복, 망토, 원피스 등 쏘냐의 의상에서 검은 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 연출된다[그림 13, 14, 15, 16].

쏘냐는 듀피(R. Dufy)와 더불어 폴 포와레의 주문으로 직물을 디자인 하였다. 샤넬²²⁾은 이미 큐비즘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포와레는 그렇치 못하였다. 쏘냐는 포와레와 일치할 보였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듀피와도 대조적으로²³⁾ 강한 색에 추상적 패턴으로 디자인 한다[그림 17, 18]. 리용 실크회사에서 50개의 직물디자인도 회화에서 구축한 색채작업으로 진행시킨다. 쏘냐의 직물디자인의 특징은 사각형, 마름모형, 나선형 등 기하학적 무늬 혹은 흑인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문양, 변모양, 긴 줄무늬, 물결무늬 또 흰색에 검은색의 문자로 꽉 채우기도 하며 추상적 디자인을 하였다.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주로 구상적인 패턴으로, 양귀비나 수레국화 또는 장미 같은 식물장식으로 화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나 쏘냐의 직물창작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대중의 취미도 변화를 추



[그림 18] 칸디다 김은석의 직물, 1925~26.



[그림 20] 실내에 있는 여인, 수채화, 1925.



[그림 19] 쏘나의 의상을 입고 있는 3명의 모델, 1928.

구하는 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쏘나의 회화에서 발견했던 색과 형태들은 동시적 직물(tissues simultanes)을 만들며 텍스타일 산업의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²⁴⁾[그림 19].

쏘나의 의상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생활을 초월한 자아를 창조하는 욕구로 표현되며 의상을 통해 구체적인 삶을 확실히 하고 일률적인 삶의 패턴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IV. 결 론

쏘나 들로우베의 회화와 의상·직물디자인에 있어서

조형표현은 '동시성' 개념에 의한다. 동시성의 개념은 첫째 색채에 의한다. 색채의 동시성은 빛으로 부터 획득한 조형세계의 본질로써 색은 곧 형태를 이루며 주관적이며 내적 표현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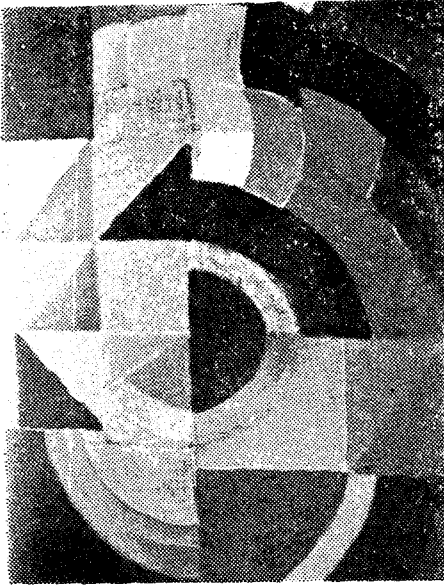
쏘나의 색채는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하려는 인상주의에서 부터 색의 시발점을 삼는다. 색이란 화가의 언어로써 예술로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쏘나는 생각하며 대상없이 그린다는 절대 추상의 길로 향한다.²⁵⁾

그러므로 눈은 색채를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보는 정도에 따라 조화와 비조화가 빠르고 느린 동작으로 상호적인 가능성을 내포하듯이 쏘나 예술의 생명적 움직임을 연속적이 것이 아니고 동시성을 가지며 빛의 지속성으로 깊이를 간직한다. 지속성과 생명적 움직임은 하나로 쏘나의 눈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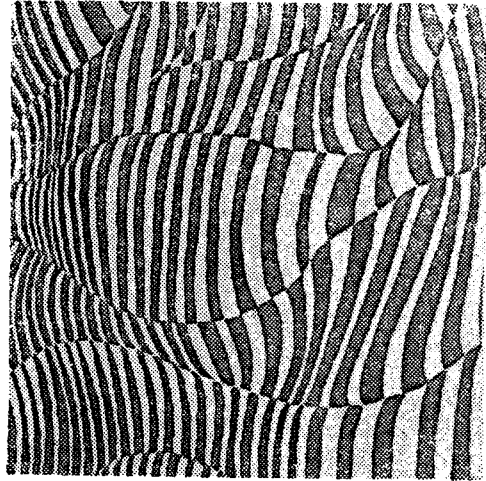
둘째, 재료의 동시성은 쏘나의 의상에 수를 놓기로 하며 플라즈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와의 관계의 조화이다. 서로 다른 마티에르의 색채와 텍스처가 쏘나 의상의 동시성의 개념이다.

쏘나의 의상은 회화이며 쏘나의 회화는 의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쏘나의 의상을 입은 여인이 쏘나의 화폭에 그려져 있기도 하다[그림 20].

쏘나 들로우베는 20세기 추상예술을 형성하는데 큰



[그림 21] 리듬과 색채, 유화, 1959.



[그림 22] 시각적 즐거움을 위한 직물디자인 스케치, 1933, 18×16.5 cm

역활을 한 화가로써 예술의 '현대'라는 개념의 태동을 함께하며 커나갈 수 있었기에 빠른 성장을 한 행운의 여자이기도 하다. 쏘나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야수파, 입체파 등의 변이의 다양함을 보고 느끼며 영향 속에서 작업을 해나갔다. 쏘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위하여 회화세계를 구축하면서 삶을 위한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쏘나의 예술은 삶의 미학으로써 숭고하다.

쏘나의 회화적 발전이 삶의 환경적 이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은 삶의 일상적인 것에서 조차 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예술과 삶의 일치를 위함이다.

20세기의 의식의 변화가 요구되었듯이 전통적 개념과 양식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기하학적인 추상세계로 나아가는 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진다.

특히 의상에서의 아방 가르드한 주제가 주목되며 쏘나 직물의 추상적 패턴은 1980년대의 Janie Wain Wright²⁶⁾ 실크드레스에서 보여진다.

색채라는 요소로 무한한 가능성을 풍만히 구축한 색채어휘력에, 대상을 배제하는 타고난 쏘나의 추상기질도 놀랍다.

로베르는 쏘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쏘나는 따뜻함을 가지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왔다. 고전적이며 특색있는 신비감을 서양과의 접촉에서도 깨지않은채 쏘나의 구조적 표현은 재창조되고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예술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니

고 있다"²⁷⁾라고.

결국 쏘나는 단순화시키려는 욕망과 여분의 것을 과감히 삭제해 버리는 주관성에 의해 예술가의 주관적 대담이 있는 미학적 사고자로써 그 시대의 추구하는 생활경험 속에서 그 시대정신을 구사하였다.

쏘나의 빛나는 색채의 팔레트와 선회하는 형태에 무한히 충실하며 시간과 공간에 일치하려는 끝없는 리듬²⁸⁾(Rhythmes Sans fin)을 향해 추구하였다[그림 21].

그리고 쏘나의 회화는 옵아트(Op Art)²⁹⁾[그림 22참조], 바자렐리(V. Vasarely)에게 영향을 주며 키네틱 예술(Kinetic Art)의 근원³⁰⁾을 이룬다.

참 고 문 헌

- 1) 1964년 58개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 2) Herold Osborne, The Oxford Companion to 20th Century art, Oxford Univ. Press 152, (1981)
- 3) Hugh Honour, Romanticism, Pelican books, 344(1984) 시인 뮈세(A. de Musset)는 모든 시대에서 끌어모은 부스러기속에서 살고 있다고 평한다.
- 4) Jacques Damase, Sonia Delaunay, Rythmes et couleurs, Hermann, 41, (1971)
- 5) Michel Hoog, Delaunay, Flammarion, 37, (1976)
- 6) Dora Vailler, L'art abstrait, livre de Poche,

- 200(1980).
- 7) Bernard Dorival, Histoire de l'art, Vol. IV, Gaillimard, 742. (1969)
 - 8) Ibid. 743.
 - 9) Gustave Vriesen, Robert Delaunay, Harsy. N. Abrams, Inc., 79~80(1967)
 - 10) 야수파는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사 조로써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여 색채 그 자체의 표현을 강조하는 근대미술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다. 마티스, 블라망크, 반동겐 등이 있다.
 - 11) 이 개념은 로베르 들로우베가 웨브렐이 1836년에 발간한 '색채의 동시대비와 그 법칙에 따르는 대상의 조화의 법칙'에서 빌어온 용어로 율피즘회화에 기본적 조형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 12) 율피즘은 입체파에서 갈려나온 들로우베에 의한 그물운동으로 색채자체의 리듬미칼한 조형을 강조한다.
 - 13) 큐비즘은 대상을 해체하여 여러각도에서 본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1907~14년에 걸친 미술운동.
 - 14) Virginia Spate, Concepts of modern art, Harper & Row, Publishers, 85(1974)
 - 15) 그리스의 음악의 신으로써 노래를 잘 불러 木石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 16) Roger Bordier, L'art morderne et l'objet, Albin Michel, 89(1978)
 - 17) René Huyghe, L'art et l'âme, Flammarion, 109 (1960)
 - 18) Jacques Damase, op. cit., 306.
 - 19) Ibid. 135.
 - 20) Ibid. 177-178
 - 21) Ibid. 152
 - 22) MaDowell's directory of 20 th century fashion Prentice-Hall, Inc., 22(1985)
 - 23) Rosemary Lambert, The 20 th Century, Cambridge Univ. Press, 54(1981)
 - 24) Ernestine Carter,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III, (1977)
 - 25) Maurice Raynal, Modern Painting,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67(1960)
 - 26) MacDomell's directory, 39
 - 27) Jacques Damase, op. cit., 306
 - 28) Ibid. 305.
 - 29) Optical Art 는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미술경향으로 우리눈에 주는 시각적착각을 이용하여 색과 선의 운동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작가로 Vasarely 를 들수있다.
 - 30) Herold Osborne, op. cit., 151.
키비틱 예술은 움직임을 부여하여 작품자체가 움직이거나 가능성을 지닌 작품을 추구하는 예술운동.